

코로나19 여파 운영 중단된 익산 주요 관광지 다시 Open

시티투어 버스 타고 관광지로

순환형 시티투어 운행
익산역 출발해 원광대
고스락·박물관 등 경유

교도소세트장·아트센터 등
관광지 곳곳 불거리 등 다채



익산 주요 관광지가 다시 문을 연 가운데, 시는 지난 9일부터 순환형 시티투어를 운행하고 있다.

익산 주요 관광지가 다시 문을 연다. 고백도시 익산은 500만 관광도시 조성을 위하여 주요관광지 곳곳에서 다채로운 행사로 불거리와 즐길거리를 마련했다. 먼저, 익산시는 지난 9일부터 순환형 시티투어를 운행하고 있다. 코스는 익산역을 출발하여 원광대학교, 고스락, 교도소세트장, 국립익산박물관, 왕궁유적, 보석박물관을 경유해 익산역으로 돌아온다. 탑승 인원에 관계없이 매주 토·일요일, 공휴일, 10시부터 16시40분까지 1일 12회 운행한다. 승차권 발급은 별도 예약 없이 시티투어 출발 시 현장에서 하면 된다. 테마형 시티투어는 외부 관광객뿐만 아니라 관내 시민들이 익산의 역사를 바로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기 위해 5월 19일부터 운영을 시작하며 코스는 익산역-왕궁유적-익산쌍릉·국립익산박물관-익산역이다. 단, 10인 이상 사전 예약 시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운행한다. 순환형은 각 코스별 관광안내소에 배치된 문화관광해설사가 탑승객 맞이와 배웅, 관광지해설 서비스를 제공하고, 테마형은 출발과 도착에 이르기까지 전담 문화관광해설사의 진행으로 품격 높은 맞춤형 시티투어로 한다. 또한 7월부터는 문화콘텐츠형 시티투어 공모사업을 진행하며 체험이 강화된 테마가 있는 여섯색깔 고백여행 시티투어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또한 본격적인 대표관광지 공연 및 체험행사 홍보를 위하여 보석박물관 일원에서 사전행사를 시작한다. 사전행사를 시작으로 5월 16일부터 6월 28일까지 매주 토·일요일마다 총14회 색다른 공연과 체험을 실시할 계획으로 관광객의 불거리와 즐길거리를 위해서 퍼레이드, 마술, 아카펠라 등의 공연과 사금체험, 페이스페인팅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마련되었으니 영유아 동반 가족단위 관광객들은 보석박물관에 방문해보는 것도 좋다. 이어, 국내 유일 교도소 촬영지로 원래도 유명했던 성당 교도소세트장은 작년 대한민국 상품대상을 수상하고 그 인기가 날로 치솟고 있다. 신기하게도 교도소 정문을 들어서서는 순간, 넓은 잔디와 높은 담장, 곳곳에 붙은 교정 문구들이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에서 봤던 딱 그 장면이다. 여기에, 무료로 대여해주는 죄수복과 교도관복을 입고 수갑을 차고 호송버스까지 탑

승하면 그 어디서도 해보지 못한 특별한 추억과 인생사진을 남겨보게 된다. 아울러, 올해 초 오픈한 문화예술의 거리에 위치한 익산아트센터는 고백/사랑이라는 주제로 트리아트를 전시하고 있어 가족, 연인들이 방문하며 즐겁게 관람할 수 있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30분까지이며 입장료는 매 30분마다 입장료는 무료이다. 또한, 최근 익산아트센터 옆에 포토존 조형물을 설치했는데 익산관광브랜드 개발용역으로 착안한 용케이터인 귀여운 마룡이를 만나 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익산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기간동안 500만 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행사 및 체험, 관광지 정비 등을 통해 관광객 맞이 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특히 익산 투어를 통해 시민들이 익산역사를 바로 아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림 기자



남원시는 금수정(錦水亭) 해체·보수를 이달 중 완료했다. 금수정은 일제의 민족문화 말살정책에 저항하기 위해 남원시민들이 금암봉 종턱에 류정을 짓고 신사참배를 가는 척하다 금수정에 둘러 시문을 짓고 풍류를 즐긴 곳으로 알려져 있다.

남원 금수정, 새롭게 단장

일제강점기 신사참배 대신 풍류 즐겨
지나해 7월부터 보수해 이달 중 완료

남원시는 금수정(錦水亭) 해체·보수를 이달 중 완료했다. 금수정은 일제의 민족문화 말살정책에 저항하기 위해 남원시민들이 금암봉 종턱에 류정을 짓고 신사참배를 가는 척하다 금수정에 둘러 시문을 짓고 풍류를 즐겼으며 이는 금수정 건립시기를 미루어 볼 때 남원시민들이 신사참배의 거부와 민족의식 고취를 엿볼 수 있는 매우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금수정은 1936년 건립되었다. 금암봉에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금수정이 오랜 세월을 견디지 못하고 기동 기초석이 침하되고 건물 기둥의 뒤틀림 등으로 붕괴 위험성이 높아져 문화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2018년 금수정 해체·보수 계획을 수립했다. 해체·보수 공사는 금수정이 자리잡고 있는 금암봉 비탈면에 대해 안정성 검토용역을 먼저 시행하여 금수정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한

후 사업비 3억5천만원을 투입 지난해 7월부터 전면 해체·보수공사를 시작하여 2020년 5월 8일 해체·보수공사를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금수정을 해체 하고보니 세월을 견디지 못한 금수정이 외관에서 보이는 것보다 이곳 저곳의 부식이 훨씬 심하게 진행되어 붕괴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태였으며 보수공사가 조금만 늦었어도 남원의 고유 문화유산을 잃을 뻔 했다"고 문화재 전문가 의견이 있기도 했다. 금수정은 남원팔경 '금암어화(錦岩漁火)'로 소중한 문화유산이나 현재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빠른시일내에 전라북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소중한 문화유산이 보존관리가 되었으면 하는 시민의 바람이다. 또한 시 관계자는 "금수정과 함께 주변에 대하여 야간경관 조명을 5월에 설치해 야경이 아름다운 금수정과 함께 관광자원, 남원어촌과 연계하여 밤에도 즐길거리를 제공해 하루종일 머무는 관광남원을 만들어 남원관광에 큰 발돋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남원=김기우 기자

창극단 전원 26명이 출연, 각자 개성으로 풀어낸 판소리 다섯바탕의 눈대목을 3일에 걸쳐 골고루 펼쳐낸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원만한 봄을 느끼지 못해 아쉬운 요즘, 전북도립국악원(원장 차주하) 창극단(단장 조영자)이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하는 소리연전 '화룡점정(畫龍點睛)'의 특별한 무대를 선보인다. 오는 14일, 15일 오후 6시, 16일 오후 4시에 소리의 고장 전주를 대표하는 문화시설 가운데 하나인 전주소리문화관(관장 유현도)과 공동주최하여 야외무대에서 3일간

판소리 다섯바탕 눈대목, 창극단들의 개성으로 풀어낸다

전북도립국악원 2020소리연전 '화룡점정', 14-16일 전주소리문화관 야외무대서

펼친다. 소리연전 '화룡점정(畫龍點睛)'은 2018년 첫 선을 보인 이후 도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전라북도립국악원의 대표 기획공연이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한 소리연전은 코로나 19로 침체되어 있는 전주한옥마을의 관광을 활

성화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자 준비한 공연으로 주목했던 공연계의 활력소가 될지 기대된다. 단원들의 각자의 개성으로 풀어낸 다섯 바탕 눈대목 레퍼토리와 쉽고 친절한 해설은 처음 소리 공연을 접하는 관객들에게도 다채로운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창극단장 취임 후 첫 공연을 올리는 조영자 창극단장은 "단원들과 함께하는 첫 공연인 만큼 준비하는 매순간이 설레고 기대된다. 특히 짜임새 있고 밀도를 더해가는 재치 있고 박진감 넘치는 소리판의 무대가 될 것이다"고 전했다. 차주하 국악원장은 "이번 공연을 통해 코로나 19로 몸과 마음이 지친 도민들에게 한옥마을의 정취와 따뜻한 햇살, 소리로 위로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했다.

유현도 전주소리문화관 관장은 "공연재계 첫 공연을 전라북도립국악원 창극단원들의 귀한 소리로 열게 되어 뜻깊고 감사하며, 지루할 틈 없이 진행되는 다채로운 대목들에 귀 기울여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이렇게 좋은 공연을 한정된 객석으로 운영해야 해서 아쉬움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14일, 15일, 16일 전주소리문화관에서 진행되는 공연은 사전예약자만 관람할 수 있으며, 전주소리문화관 사무실을 통해서 예약이 가능하다. /김진성 기자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